

「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」 발족식 및 토크쇼 추진결과 보고

1. 개 요

□ 행사 취지

- (기념행사) 정부 3주년 및 농특위 1주년
 - * 정책기획위원회 등 국정과제협의회 공동 추진, ‘다시 국민과 함께 희망을’ 슬로건 노출
 - * VIP 특별연설 말씀: ‘국민과 함께’, ‘위대한 국민 덕분에’, ‘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’
- (여성포럼 출범) 성평등 의제 공론화 및 다양한 의제 논의, ‘21년 ‘특별위원회’ 격상을 목표로 연말까지 한시 운영

□ 행사명: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발족식

□ 주최: 국회의원 서삼석, 대통령직속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

□ 일시·장소: '20. 5. 15(금), 10:00~12:30,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

* 코로나 19 대응지침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좌석 배치

□ 참석자: 김영란 위원 등 95명 참석

- (국회의원) 서삼석 의원, 위성곤 의원, 이원욱 의원
- (농특위) 김영재, 황수철, 박순연 사무부국장 등 농어촌정책팀
 - * 농특위 전 위원에게 행사 안내, 본위원 및 특별위원장 참석시 소개할 예정임
- (포럼 위원) 김영란 위원장 등 22명 참석
- (관계부처)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, 해수부 이경규 수산정책관, 농진청 농과원 김경미 부장,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등
- (기타) 기관 및 단체 관계자, 농어민단체, 전문가, 기자 등

□ 주요 내용

- (1부 발족식) 기념사진 촬영, 개회사·축사·환영사, 농특위 1주년 영상 상영
- (2부 토크쇼) 주제 강연 및 대담

2. 주요 내용 및 결과

① (발족식) 서삼석 의원 개회사, 내·외빈 축하, 김영란 위원장 환영사

- (서삼석 의원) 포럼이 농어촌 지역 여성들의 성평등에서 삶의 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 함
- (위성곤 의원) 농어업 분야에서 여성을 독립적이기 보다는 남성의 보조적 역할로 보는 경향이 있음.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더욱 매진하겠음
- (이원욱 의원) 농어촌 성인지 예산을 정부가 적극 반영했으면 함
- (이재욱 차관) 여성 농어업인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양성평등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 농어업도 발전할 것임
- (김영란 위원장) 농정 틀 전환과정에서 여성 농어민에 대한 정책 개발은 빠질 수 없는 과제인데 농특위 조차 소홀함이 있었음. 성인지적 농어촌 여성정책과 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함

② (주제강연) 성평등한 농어촌 사회 구현: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

- 2020년 세계 성격차지수(Global Gender Gap Index)로 본 한국의 성평등 정도는 153개 국가 중 108위이며, 교육수준과 건강·생존 부분은 성격차가 거의 없는 반면, 경제적 참여와 기회, 특히 정치 세력화 부분에서 성격차가 심각함
- 농어촌의 경우 인구 과반수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주 비율(농가 19.7%, 어가 22.5%), 농·수협 임원 수(농협 8.7%, 어촌 계장 2.4%) 등을 보면 여전히 성격차가 확연하다고 지적
- 성평등한 농어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동 포럼의 역할과 세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,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의 우선 순위 결정, 각 단체·농특위·관계부처 등의 역할분담 등 논의 필요

③ (대담) 여성농어업인 단체, 소비자단체, 관계부처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‘농어촌에서 당당한 여성이 되는 길’을 주제로 토크쇼 진행

* 참여: 김영란 위원장(사회자), 오순이 정책위원장(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), 이소희 대표(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), 김인련 회장(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), 이영자 회장(한국여성농업인 밀양시연합회), 안창희 사무총장(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), 조완석 대표(전국 먹거리 연대), 김둘순 연구위원(한국여성정책연구원), 오미란 팀장(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)

- (왜 여성들이 조직을 만들었는지) 여성들은 농업경영인의 부인인 보조역할만으로는 주체성을 갖기 어려웠음. 농촌의 경제회복과 생활개선, 육아 등 여성 스스로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설립함(한여농, 생개회, 전여농)

* 남성과 함께 했을 때 오히려 여성의 본질적인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판단함

- (다양한 교육 진행과 의사결정 참여) 리더, 성평등 강사, 가족경영협약 등의 교육을 통해 자체역량을 향상시켜 다양한 활동의 참여를 유도
 - 여성 리더양성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 대표성을 가진 역할에 참여(이영자 회장)
 - 여성은 남성 못지않게 일을 하는데도 땅의 80%, 이장의 90%가 남성의 몫임, 성평등한 농촌이 되지 않으면 농촌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여 성평등 강사를 육성하고 있음(오순이 정책위원장)
 - 제주에서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마을운영을 위해 성평등 마을규약을 마련,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임(오순이 정책위원장)
 - 가정 내 성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가족경영협약 교육을 시행, 그 결과 포천시 신경숙님 부부는 ‘일과 소득의 분배를 명확히 하여 서로 존중하고 남편에게 인정받는 기회가 됐다고 밝힘(김인련 회장)
 -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현장 여성어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그 어려운 선거를 치러 경기남부 수협이 최초 대의원으로 선출,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음(안창희 사무총장)

- (직업인으로서 청년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) 남성 중심의 농어촌에 대한 의식전환과 공무원의 인식개선 필요(이소희 회장)
 - 농어촌에 들어오는 순간 20년 전으로 회귀한 것 같으면서 농어촌 주민의 남성 중심주의 의식을 바로 잡아줬으면 함
 -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며,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평생 직업으로써 농업을 선택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
- (도농교류 주체로서 여성의 만남) 대부분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여성인데 농촌에 가면 남성이 생산자 대표로 맞이함. 도농교류 주체가 여성이 되어 다양한 교류활동을 유도(조완석 대표)
 - 도시 소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음
- (부처 정책지원) 다양한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, 양성 평등, 여성 농업인 역할 확대, 복지·문화 등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
 - 농촌형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과 매뉴얼 개발, 성평등 강의 의무화 및 강사단 육성, 여성 간 연대, 전문가 풀 구성, 새로운 패러다임의 여성 정책 개발 추진 중, 정책의 지역추진체계 개편 필요(농식품부 오미란 팀장)
 - *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여성정책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
 - 여성어업인의 역량을 높이고 결속력을 모으는데 노력하고 있음 (해수부 이정미 사무관)

3. 향후 주요 계획

☐ 제1차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개최(6월중)

- * 주제: ① 성평등 확산 및 정착(5월 발족식), ②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관리 향상 (1차 포럼, 6월), ③ 직업역량 강화(2차 포럼, 9월), ④ 삶의 질 향상(3차 포럼, 11월)

☐ 농특위 정책연구용역 준비(5~6월)

- * 과제명(안): 농어촌 여성정책의 개선과제 도출 및 대안 모색 연구